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역대상

구역예배 · 에베소서

남성구역예배 · 마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6

2000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역대상

구역예배 · 에베소서
남성구역예배 · 마태복음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 사람을 자녀로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부름받는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부름받게 된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여 다시 살아나는 축복과 희망 속에서 우리들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각자가 홀로 있도록 하시지 않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직과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움직이는 생명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특권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앞에 서 있습니다.

충현의 공동체가 이 부활의 공동체의 참 모습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교회로 한걸음 한걸음 정진해 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이는 총으로 우리들의 각 구역과 가정에서도 동일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0년 6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역대기 서론

본래 역대기는 상과 하로 나뉘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히브리 말은 그 뜻이 '그 시대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연대기, 혹은 연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역대기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다시 기록한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그 자체로 매우 깊은 의미와 의의를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역대기는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들의 나열'의 입장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곧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되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의 남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예배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서가 한 사람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나, 근거가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내용

1:1-9:34	계승
1:1-3:24	시대의 계승
4:1-7:40	가계의 계승
8:1-9:34	왕권과 성전의 계승
9:35-2 9:30	다윗
9:35-12:40	왕과 백성
13:1-14:17	예루살렘의 다윗
15:1-17:27	언약궐
18:1-20:8	열방중에 있는 이스라엘
21:1-22:19	하나님의 집
23:1-27:34	성전과 왕국의 조직
28:1-29:30	상속

로마로 하여금 그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든 힘은 '관용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관용주의가 무질서한 가치와 영적 타락의 근간이 되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관대한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관대함이나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은 채, 관대함이라는 가치에 매여 무작정 마음을 여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때로 '사랑치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들은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들에게 '관대할 것'을 암암리에 혹은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와 천주교가 화합을 선언하면서 불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합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컴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주의'를 선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은 '거짓 진리'에 대하여서는 결코 관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서도 결코 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것을 사랑치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사랑치 않으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진리로 인도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즘 이단들이 하는 말들에는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다만 더 잘 믿고 더 잘 증거하자는 것뿐입니다”와 같은 자기 변호들이 가득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곧 이단사설들의 공통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22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단사설들도 지혜를 짜서 그리스도를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그들의 이단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이단들은 특정한 개인에게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여 그에게서 마치 어떤 신적인 권세가 흘러나오는 듯이 과장합니다. 신비한 체험과 이적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특정한 한 개인을 거의 신격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들 그것은 포장에 불과한 것이요,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최고이고 우리의 교회만이 참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이니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때’를 분별하려고 권면합니다. 수없이 많은 신흥 이단들이 명멸하는 이 때에 우리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 성경적 근거가 없는, 혹은 성경을 왜곡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경계하십시오.

이단사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룩한 비밀'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나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소망의 기쁨으로 채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룩한 비밀이 있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변개될 수 없는 자부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명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3절).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범죄에 그리스도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얼굴이 점점 흐려 집니다. 우리들의 작은 거짓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신을 살피 정결케 해야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은 자는 자신을 정결케 가꾸는 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케 하옵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몸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잘 피하기만 한다면 건강의 반 이상은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는 식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상황과 형편 때문에 먹지 않으면 더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그것이 점차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유사합니다.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하기만 하면, 영혼은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게 되는 나쁜 욕망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힘을 잃고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피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먼저 미혹하는 자를 피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매력있고 달콤한 죄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 것' 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8절). 우리는 또한 형제를 사랑치 못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욕망을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인과 같이 질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12절). 왜 질투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했으면 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면서 맑은 영혼으로 사는 한날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피할 것을 피해야 영혼이 맑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저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미혹들을 피하게 하여 주소서.
② 총천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뻐할만한 구석이 있어야 예뻐하지!” 가끔 우리들이 미운 짓을 골라 하는 듯한 자녀를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다보면 정말 사랑을 할래야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물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틈에서 사랑을 품고 베풀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베풀어진 사랑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악의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사랑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13절)는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이할 정도의 사랑으로 자신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핍박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거의 전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미움과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갓음을 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스스로 영적 패배를 자초하는 것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형편속에서도 ‘사랑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9절).

하나님은 ‘사랑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것에 귀가 솔깃해지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믿는 자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재림주로 오신 예수를 빙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을 좇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미혹하는 세력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망하게 만드는 영에 속하지 말고, 진리의 영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미혹의 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에게서 나와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지 않고는 결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그분은 화목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지, 아니면 용솟음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화목제물이 되신 독생자의 사랑이 나의 가슴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셨고,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평가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학생은 시험 치르는 날을 대비하면서 공부하고, 직장인은 진급을 염두에 두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과 사랑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미워한다고 할 때 나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도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형제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혹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한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찾아드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제부터 과감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서,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기도 제목 / 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써 말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생존경쟁 현장에서 우리는 연속되는 싸움의 희생물이 된 채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람들은 능력을 갖추
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
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
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사건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코 힘들다고 신음하지 않습
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그의 세례가 증
거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피가 증거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
셨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안에 있
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
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진 자는 세상을 향
해 거세게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이 그리스도를 참 신앙고백하고 있으며, 그의 안에 거하고 있
습니까? 둘째,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마
지막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종종 알아야 하는 지식은 소유하지 못한 채, 몰라도 되는 지식은 축적하려고 몸부림을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은 너무나 빈약한데, 아쉬움도 모른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다가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때 얻게 될 줄을 알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면, 범죄한 자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응답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도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물으면 사람들은 흔들리고 맙니다. 이미 잘못된 사상에 휩싸인 자들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본질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 악한 자리에 들어간 자도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악한 자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키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 악한 사단의 지배권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사상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많지만 진정한 사랑은 적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1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사람들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 안에서(2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거룩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사랑입니다(2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 할 때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도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고, 진리가 되시며 영원한 사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사랑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세계명(렘31:31-33절)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요19:30).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새언약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언약입니다. 우리들로서는 도무지 이룰만한 능력이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6절)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세계명을 이곳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명의 백성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진짜 좋은것 주변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요즈음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시계, 가짜 향수, 가짜 옷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샀다고 속으로 자부하지만 결국은 속아서 엉뚱한 물건을 사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물건에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옆에서 진리 아닌 비진리나 가짜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요한은 가짜 참기름을 진짜인 것처럼 선전하는 거짓된 장사꾼이 있듯이 거짓 진리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7절).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비진리를 진리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는 자들입니다(10절).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상종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11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와 또한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신 엉뚱한 것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진리시며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을때 거짓 교사들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웁시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후사(後嗣)이기 때문에 다가 올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과 각오하면서 살 것을 권면합니다(롬8:17-18). 그렇다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먹고 잘사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6:33).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한 후사로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땅 위에서는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거짓교사들과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이 땅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요10:1, 요일3:16). 뿐만 아니라 이 영적 건강과 함께 육적 건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2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진리로 더불어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나라에 온 여러 나라 대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들은 항상 자신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그를 보낸 나라의 대표의 입장에서 말하고 또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빌3:2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하도록 보냄을 받은 대사(大使)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말을 하는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말하고 우리들을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나그네와 같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는 오직 "하늘나라 시민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 했습니다. 바울 뿐만 아니라 파송된 많은 이방인 선교사들도 다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런 빛도 없이 다만 하나님 나라만을 전한 일꾼들이 이방인들에게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7절) 이런 일꾼들(하나님 나라의 대사)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일(8절)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대사로서의 삶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케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양극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부를 늘 1등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늘 꼴지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늘 잘 해준 사람이라든지 혹은 늘 가시노릇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기억이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도 기억나는 두 사람이 있는 데 늘 으뜸 되기만을 좋아하고 손님을 접대치도 않는 디오드레베(9절)가 있는가 하면, 늘 선한 것을 하고 진리 가운데서 살며 못 사람들에겐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 착한 행실에 본이 되는 데메드리오입니다(10절). 우리 모임에도 이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누가 보든지 안보든지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이런 사람들이 밝혀지거든 하물며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전하기를 악한 것(디오드레베)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데메드리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11절). 우리도 자주자주 선악간에 구분은 하면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원하는바 선은 행치 않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줄에 서 있을때가 많은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맡깁시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얼마 전 민족성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기초 교육의 산실인 초등학교에 일부 민족 단체들이 단군상 건립을 추진하여 우리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단군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단군이 신화인가 아니면 역사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군이 신화적 인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갖게 되는 의심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과연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대체로 수긍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구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임을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역대기는 무려 9장에 걸쳐 긴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족보는 일반 역사를 말하는 데 일차적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관심을 둡니다. 때문에 족보는 신앙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족보(28절)를 보십시오.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름받은 백성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예는 이스마엘(29절)이 아니라 이삭(34절)이요, 에서(35절)가 아니라 이스라엘(2:1)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신앙의 역사를 기록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992년 말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가와 언론의 최대 관심은 소위 '노심(虛心)'이었습니다. 즉 후계자와 관련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노심의 향방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며 결국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 운명 또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린 인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경륜(經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엡 3:9).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7).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오래 전부터 감취어져 왔으나 하나님은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역사를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본문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 네 번째인 유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 다윗 왕이 등장하며,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그 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로보암 2세와 히스기야(13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킨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판도보다 더 넓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따라서 당시 세속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에 관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그에 관한 구절은 여덟 절뿐입니다. 그는 분명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넓은 영토를 확보한 대단한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사역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속 역사에 기록될 만큼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나약한 왕이요 매일 속병만 앓는 병약한 사람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중 히들 '한 공동체의 비전은 그 지도자의 비전만큼 자란다' 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 29:18).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왜냐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백성은 흥왕합니다. 왜냐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시가 주어질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본문은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급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야베스(9-10절)와 갈렙(15절)입니다. 먼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커다란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10절). 다음으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열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 있는 정탐 보고를 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 비전을 45년 동안 줄기차게 간직하여 하나님만 전심으로 좇음으로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헤브론을 기점으로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주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선두(先頭)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합니다. 두 사람은 1889년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하여 중학교를 중퇴하고 후에 극렬분자가 된 반면, 아이젠하워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후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생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만나 한 사람은 분노의 독기를 발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결국 히틀러가 56세에 그의 비밀지하 병커에서 자신의 총으로 자살했을 때 많은 이들이 기뻐했지만 아이젠하워가 80세에 눈을 감을 때 온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의 족보가 소개되는 4장을 보면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영토와 인구 면에서 쇠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므온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로,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죄로 인해 야곱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예언이 성취되어 열두 지파 중 가장 적은 인구가 되었으며 가나안의 기업 분배에서도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일부분을 나누어 소유하며 살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서야 유다 남방을 정복함으로써 자신들의 거주지와 목초지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34-40절).

선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선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선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선두에 선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의 본문은 요단 강 동쪽에 기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 반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은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의 축복과 그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앗수르 왕에게 사로잡힌 요엘의 가계와(4절-6절) 길르앗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벨라의 가계를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였으나 근친상간의 범죄를 범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빼앗겼습니다. (창49:3,4) 그런데 이런 유다의 범죄의 결과는 심각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축복도 유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 강 동쪽의 풍요로움에 마유을 빼앗겨 그 곳에 정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에 쉽게 물들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죄악을 앗수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예루살렘에 팽배해 있었는데 그 기원이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서 심판받는데 있었습니다. 즉 현실의 풍요함 가운데 있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변할 수 있다는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시대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 단 동편의 세 지파의 족보들의 역사를 소개한 5장에 이어 본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다른 지파에 비해 더욱 비중있게 상세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본서의 저자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대하를 기록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는 그 여자형제 디나를 위하여 세겜 족속을 대량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였는데 레위는 이것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나안 땅에서 독자적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시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걸고 헌신한 것이 인정되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서 특별히 본문은 아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먼저 소개하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계보를 맨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서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정국가를 회복하여 만국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만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벧전2:9).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직도 원수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원수된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지파가 담당하였던 성전 봉사 직무 중 성가대 오의 직무를 언급하는데, 다윗의 성가대 발족(31절, 32절), 헤만의 계보(33절-38절), 아삽의 계보(39절-43절), 에단의 계보(44절-4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성가대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헤만(33절), 아삽(39절), 에단(44절)의 직분을 강조하려고 이들의 직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그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를 각기 조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눅3:23-38) 족보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여호와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어느 한 가문에서만 속해 있는것이 아니라, 레위지파의 3대 계보에 골고루 속해 있다는 사실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시편의 총결론(시150:6)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가대가 공식적인 성막의 직분이 된 것은 다윗이 공식적인 열 두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삼하5:1-5)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면서 종교 제도도 같이 재정비한 이후 부터였습니다.(대하9:17-26) 이렇게 조직된 성가대는 성막 봉사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모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다 사용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서 이미 소개된 대사장의 계보가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는 유다지파가 지도 자격이었으며, 영적이며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레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이 성막의 직분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고라로 인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심으로 그 아들 에르아살에 의해서 제사장직은 계속해서 확보되고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사람들은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한 지역을 거주지로 지정받지 못하고(창49:7)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있는 48성읍에 뿔뿔히 흩어져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막 봉사라는 귀한 사역을 맡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기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다른 지파의 죄를 중보하는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서 십일조를 받고 (민18:20-24)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성읍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인 대제사장 가문이 차지한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하여 모두 13개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레위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았던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께 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기록한 대상1-9장까지의 족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아직도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6개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인데 다윗 왕가를 버린 북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앗수르에게 멸망당할때에(B.C. 722년) 포로로 끌려갔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었을 때 이것에 반기를 들고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시아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대하34:6). 이러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이 지파들의 일부는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언약백성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장의 족보는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할 여섯 지파 출신의 남은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파의 수(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본장의 족보에서는 단 지파와 스블론 지파의 족보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단 지파와 스블론지파가 제외된 것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가나안 최 북단에 위치하여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우상숭배에 깊이 물들었고 전 이스라엘의 영적타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끝내 생명책에 남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이 시대에 우상숭배를 배척하고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 왕조의 계보를 살피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야곱,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고찰해 나가는 가운데 언급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왕조시대 이전까지의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28절)와 사울왕가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29-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 나타난 족보는 인물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족보의 맥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곤란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베냐민 지파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입니다(1절).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의 높은 조류의 파고 속에서 자신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흐름에 따라감으로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언약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의 현황을 언급한 전반부(1-34) 가운데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악사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주민들(1-9절)에 관한 내용에서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면서 축성과 성전건축에 착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의 간략한 경과(1-2절), 예루살렘에 거한 유다 지파 사람들(3-6절), 예루살렘에 거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7-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자들은 고레스 칙령(스 1:1-2)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겔37:22) 주역이 된 자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지파와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신분을 초월해서 여호와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악사들의 족보(10-16)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14-16절의 관련 구절인 33절로서 그들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삶 전체를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의 일평생을 오직 나에게 바친 거룩한 자였다'는 칭찬이 있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 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레위인들의 계보를 언급하는 대목(14-34절)에서 악사들의 족보를 기술한 전문단(14-16절)에 이어지는 본문은 예루살렘거민 중 여호와께 적극적으로 봉사했던 무리들인 문지기들(17-27), 레위인들의 다양한 직분들(28-34), 그리고 사울 왕가의 족보(35-44)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비록 사람이 보기에 천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직무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얻은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직무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또는 악사들의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시84:10). 왜냐하면 이들의 직무는 기껏해야 제사 또는 예배를 가능케 하기 위해 성막 주위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는 별다른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성막은 제대로 보존되지도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차질이 발생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직무를 맡기심으로(28-34절) 각자의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그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셨으며 그 맡은 일에서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심으로 직무를 월권, 회피하는 일은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끼치는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충성된 자들이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던 다윗 왕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역대기상 기자는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계보를 다루었습니다(1:1-9:44). 그러나 본장에서는 다시 사울의 죽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자는 전단락을 통해 서론적으로 나타난 사울의 죽보(9:35-44)에 연결시킴으로 본장은 사울의 죽음을 그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울의 죽음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게 될 때에 어떠한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배반한 사울의 비극적 종말을 통하여 사울이 범한 죄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의 장사(葬事)라는 비참한 말로와 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역대기 저자는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7-14). 실패자 사울은 죽음 이후에도 원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되고 그의 머리는 잘려지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우상신의 묘에 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세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통하여 신앙의 실패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며,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실패보다도 비참한 수치를 물고 온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값비싼 역사적 사실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충성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매사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십자가 순종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울의 죽음을 언급한 전장(10:1-14)과 시간적으로는 7년 후의 사건인 본문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에서 특이할만한 사실은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하에 왕으로 추대되었으며 권위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충성의 서약을 받고 왕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는 이같은 놀라운 일이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된 일(3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 수많은 우여곡절과 위험을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위기, 권력자의 질투심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 이방인들의 공격의 위험 등 헤아릴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당해야만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뒤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 왕조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와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였을 때에 실패했다면 다윗이 왕조를 건설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부스 족속의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다윗의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서론

A.D.62년경 로마 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시위대 가까이에 위치한 한 셋 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1차 투옥 생활을 보내던 바울은 본 서신을 비롯하여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등 네 편의 옥 중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 본 서신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특히 예수 부활 이후 성령 강림으로 창립된 교회의 비밀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쓴 것으로 에베소 교회 뿐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같이 돌려 볼 수 있도록 쓴 회람서신입니다.

본 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에 대한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해설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주제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바울은 죄로 인한 만물의 부조화와 분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통일된다는 대화합의 진리를 명쾌하게 펼쳐 보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본서 역시 전반부의 원리 부분과 후반부의 실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전반부인 1-3장은 창세 전에 성도들을 택하사 당신의 천국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은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반부인 4-6장은 그러한 놀라운 신분에 맞게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신자들의 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베소서와 기본구성

I. 성도의 지위 1:1-3:21

1. 삼위에 의한 구원 1:1-14
2. 계시를 구하는 기도 1:15-23
3. 개인, 역사적 차원에서의 성도의 본질 2:1-3:13
4. 교회의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 3:14-21

II. 성도의 생활

1. 성도의 교회생활 4:1-16
2. 성도의 새 생활 4:17-5:21
3. 성도의 가정 및 사회생활 5:22-6:9
4. 성도의 영적 싸움 6:10-24

제 1 과: 에베소서 (1)

부르심의 소망

찬 송 / 46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1-14

먼저읽기

결혼하기를 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에 맞는 여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맞는 순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먼저 구해놓고 결혼할 사람을 찾기 보다는 한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게된 한 남자가 이제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룰 집을 구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거기에 맞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자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도 심히 좋았던 인간을 위한 창조이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할 가치도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도록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감격에 겨워 터져나오는 외마디의 외침이 찬양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찬양하리로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에베소서의 인사말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절)
2. 바울 사도가 성도를 향한 문안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2절)
3.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울사도가 가장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3절)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4,5절)
4.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6절) 이것은 당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4절도 함께 참조해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5.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초두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됨과 주 안에서 신실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을 묻고 있습니다. 거룩함, 신실함, 은혜, 평강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특성들이 것입니다.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체온을 재는 온도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을 거룩함과 신실함과 은혜와 평강의 눈금으로 재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근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100억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소식을 당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난 후 실수로 100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있는 지도 돌아보십시오.

-
4.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돌아봅시다. 당신으로 하여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제 2 과: 에베소서 (2)

구원의 선물

찬 송 / 210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1-10

먼저읽기

보물이 담긴 상자를 선물로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보물이 방마다 가득한 보물창고를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보물 창고는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매일 매일 보물이 들어 있는 방을 하나씩 평생 열어 보아도 남을 만큼 큰 보물 창고입니다. 오늘 101호실을 열어봅니다. 내일은 102호실을 열어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찬 방이 있습니다. 향수로만 가득한 방도 있습니다. 보석과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한 방의 문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설 때는 참으로 고통 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방을 나올 때에는 그 고난조차도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물로 가득한 보물을 당신은 받아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조그마한 보물상자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들

의 삶은 매 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또하나의 보물이 담긴 방을 열어가는 감격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것들을 사랑함으로 구원의 선물 창고안에 있는 방문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은 삶의 감격을 잃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원 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 받고 난 후의 상태를 비교해보십시오.(1-6절)

구원 받기 전

1절 :

2절 :

3절 :

구원 받고 난 후

5절 :

6절 :

2.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8절)
3.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난 이후에 바울사도가 구원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우리가 그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라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경우는 이 세상 풍속을 좇음으로 공중의 권세잡은 자 즉

사단을 따르는 행위일 수 있다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경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즐기는 문화생활이나 사고방식 중에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6절참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당신의 자녀가 앉기를 원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자리가 높기 때문에 또는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사실 그 자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아 있는 그 자리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나누어 보십시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그저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선물이듯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 전체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느낀 기쁨이 있다면 나누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로서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고통으로 또는 기대감도 없이 다가오고 있는지요?

제 3 과: 에베소서 (3)

충 만

찬 송 / 177장

읽을 말씀 / 3장

공부할 말씀 / 3:14-2

먼저읽기

옆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이 바라 볼 때는 무엇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만함을 느끼게 되겠는지요. 충만함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충만함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류의 충만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정도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그러한 충만을 도대체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체험의 세계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한 정도의 충만에 이르는 쉽지 않겠지만 충만의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본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사도의 기도가 담겨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4,15절) 그리고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15절)
2. 바울사도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17절)
3. 바울사도가 에베소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19절)
4.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16-20절)
 - *16절:
 - *17절:
 - *18절:
 - *19절:
 - *20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찬송가 242장 3절의 가사를 묵상해 봅시다.

땅 위에 모든 성도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땅 위의 성도들이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에는 그 사람을 향한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의 전 영역을 능력있게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바울 사도가 에베소성도가 누리기를 원하는 삶은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당신 자신의 기대는 어떠합니까? 충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특히 믿지 않는 성도들이 당신의 삶을 바라볼 때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성령, 기쁨, 은혜, 예 그리스도, 평강) 어느정도 느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4. 충만한 삶은 결코 지식만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으로 맛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제 4 과: 에베소서 (4)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찬 송 / 242장

읽을 말씀 / 4-5장

공부할 말씀 / 4:1-16

먼저읽기

하나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도무지 하나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되지 못한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까? 힘을 써야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영광을 담고 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를 조장했던 사단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교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통일성 속에 다양성을 지닌 조화로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본문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2,3절)

2. 교회의 하나됨은 통일성과 다양성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4-6절)

3. 교회의 하나됨은 통일성과 다양성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다양성의 기초는 무엇입니까?(7절, 11절)

*7절:

*11절:

4.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2절)

5.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엡4:16)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로 싸우지 않으면 마치 하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됨은 비록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함, 오래참음과 용납함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2.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카펫트를 보면 그 전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교회 안의 직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분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쓰임받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마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자칫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3.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까지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신 각종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자라가는데 있어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몸이 어떠하겠습니까? 성장을 위한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5 과: 에베소서 (5)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

찬 송 / 389장
읽을 말씀 / 6장
공부할 말씀 / 6:10-20

먼저읽기

넓은 들판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습니다. 든든한 허리 띠도 있습니다. 가슴에는 적의 총알이 박히지 않도록 방탄 조끼도 입었습니다. 튼튼한 군화도 신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발치듯 날아오는 적의 총탄 속에서 그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와 같이 무장하지도 않은 한 군인이 있습니다. 소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탄 조끼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히 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적진을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강력한 탱크에 몸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경건하여 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

리는 결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후2:14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10절)
2.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실제모습은 어떤 것입니까?(12절)
3.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어떤 것들입니까?(14-18)
 - 수비용:
 - 공격용:
4.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해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20절) 그리고 기도 부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21절)
 - 환경:
 - 기도부탁의 내용: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지금 극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당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옵니다. 급하게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견고한 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무거운 전신갑주를 입고도 자유자재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의 관계를 다시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왕하6:17절을 보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 포위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강한 조직과 파위를 가지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3.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사람들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세상의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무장하는 물리적인 무기들로의 무장과는 다릅니다. 진리(허리띠), 의(흉배), 복음(신), 구원(투구), 믿음(방패)의 무기들입니다. 수비용이 있습니

다. 하지만 공격용의 무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야말로 강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에 임하는 당신의 무장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잘 준비된 무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가장 보완하여야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무장은 무엇입니까?

4.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안락한 흔들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와같은 형편 속에서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바울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장 먼저 부탁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제목과 바울의 기도제목을 비교해 보십시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2 과

비 전

찬 송 / 344장

읽을 말씀 / 마28:18-20

공부할 말씀 / 마28:19-20

1.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불가능해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다음의 짧은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보십시오.

2. 이 짧은 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창11:1-9)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서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꿈꾸며 만들고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들은 큰 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탑이 하늘에 까지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까지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벽돌을 만들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흙대신 접착력이 우수한 역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말입니다.

3. 이 건축을 만들 때에 보였음직한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나누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

다음의 글을 읽어보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았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도무지 비라고는 올 것 같지 않는 날씨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찬 그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에 물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노인으로 하여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그 명령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허비하면서 이 일을 하여야 합니다. 12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오직 배를 만드는 일에 투자를 해야한 것입니다.

4. 위에서 읽은 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창6:13-22)

5. 노인이 배를 만들 때 예상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당신은 왜 이 배를 만드느냐고 물을 때 했음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창6:17)

•사람들의 반응:

•노인의 예상되는 대답:

6. 우리는 위에서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만드는 두가지의 사건과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커다란 탑을 만들 꿈을 가지고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의 꿈의 결국은 분열과 좌절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비전의 결국은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요6:38-40을 읽어 보시다.

38 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7.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엡5:1-2을 읽어 보시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8.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가지기를 원하시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28:18-20을 읽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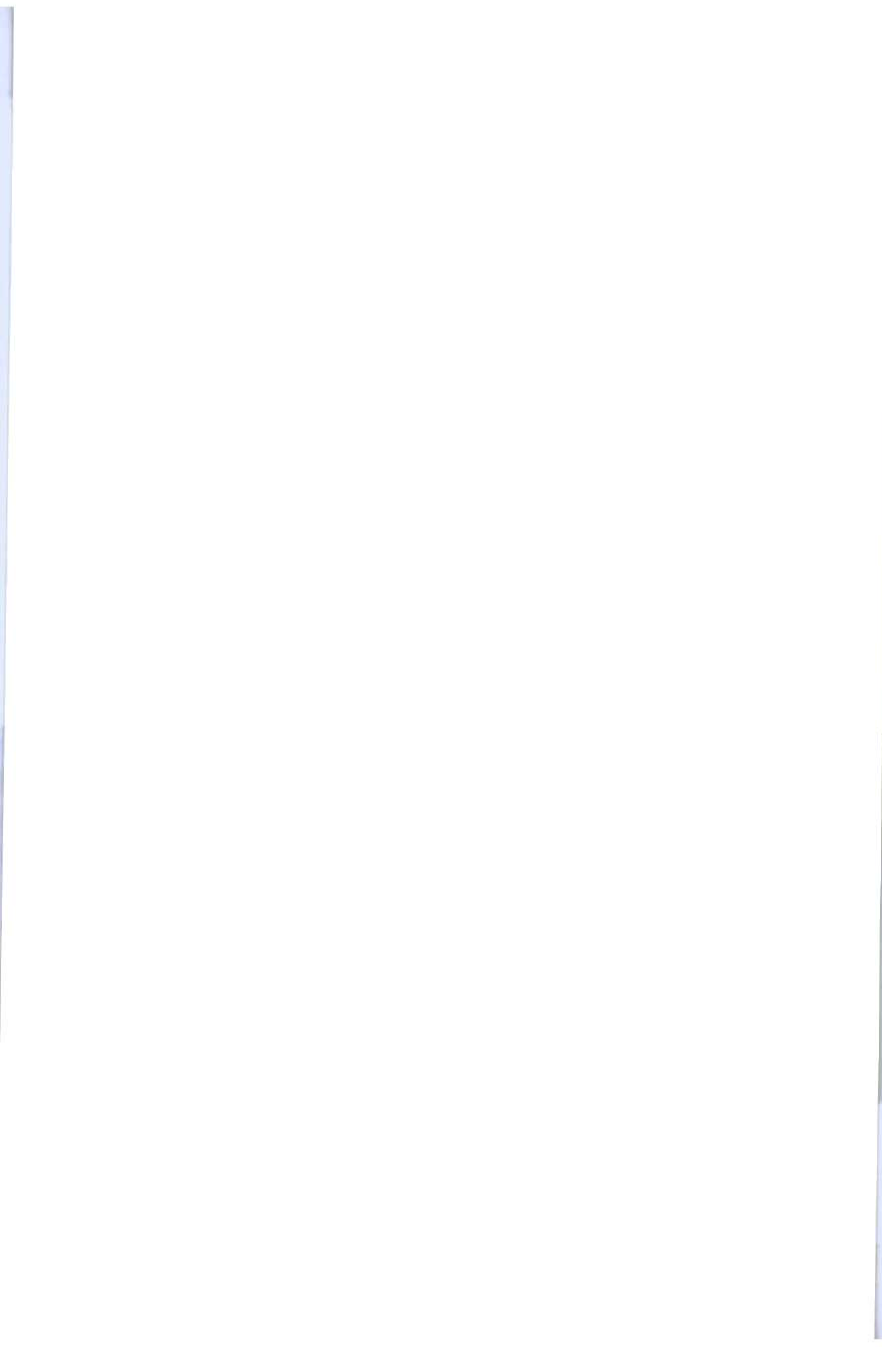
- 18절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9. 본문은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대 위임명령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

- 10.오늘의 구역 공과를 통하여 비전에 대해서 가지게 된 변화된 생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의 비전은 결코 추상적인 것에 그쳐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비전은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로마를 보기를 원했던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니스웨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가는 변화된 요나의 비전역시 구체적인 것입니다. 세계의 복

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한 나라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을 위한 기도로까지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방, 어떤 지역, 어떤 섬, 어떤 오지의 복음화를 향한 구체적인 비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